

# 롤랑 바르트 신화론 관점에서 본 교황 방한 공식 엠블럼의 기호작용과 수용도의 상관관계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Semiosis and Audience Reception in  
Official Emblems for Papal Visits to Korea Grounded in Roland Barthes'  
Theory of Myth**

주 저 자 : 김민정 (Kim, Min Jeong)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시각디자인전공 박사과정

교 신 저 자 : 윤재성 (Yun, Jae Sung) 전남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asvi84@naver.com

<https://doi.org/10.46248/kidrs.2026.1.400>

접수일 2026. 02. 19. / 심사완료일 2026. 03. 02. / 게재확정일 2026. 03. 09. / 게재일 2026. 03. 30.

## Abstract

The papal visits to Korea (1984, 1989, and 2014) elicited affective and religious experiences beyond symbolic representation, while contemporaneous social emotions, ideologies, and conflicts were reconfigured within religious signs. Grounded in Roland Barthes' theory of myth,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linking the visual stimuli of official papal-visit emblems to audiences' affective appraisal and attitudes. Three official emblems (1984, 1989, and 2014) were analyzed within their socio-cultural and religious contexts to identify mechanisms of mythic signification and second-order implied meanings. Four visual components—color, iconography, typography, and composition—were assessed using a semiosis analysis matrix derived from Barthes' myth-structural model. A survey of Korean Catholics (laity, clergy, and religious; N = 286) was conduct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and AMOS 29.0. The results indicate that visual signs operating within the mythic signification structure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ffective reception and attitudes. Group-difference tests across ecclesial roles further suggest that reception of religious symbols may be strengthened more by affective resonance than by theological considerations. By integrating case analysis with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s study conceptualizes papal-visit emblems as a mythic semiotic system and extends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reception research in design and religious communication.

## Keyword

Barthes' Myth Theory(롤랑 바르트의 신화론), Semiosis(기호작용), Audience Reception(수용도), Papal Visit to Korea Emblem(교황 방한 엠블럼)

---

## 요약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평화의 사도인 교황의 방한(1984, 1989, 2014)은 단순히 상징적 차원을 넘어 신앙인에게 감동과 신앙적 체험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당시 사회가 지닌 정서와 이념 및 갈등이 종교적 기호(記號) 안에 재배치된다. 이는 의미를 재생산하는 의미창출과정이며, 수용자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신화적 의미작용(signification)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는 교황 방한 공식 엠블럼의 시각적 자극체가 수용자의 정서적 평가(affective appraisal)를 통하여 태도(attitude)로 전화되는 경로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세 차례 교황 방한의 역사를 근거로 하여 공식 엠블럼(1984, 1989, 2014)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시대의 사회·문화·종교적 맥락 안에서 신화적 의미작용의 기제와 의미, 2단계 메타 언어활동의 암시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시각적 구성요소 4항목(color, iconography, typography, composition)을 바르트의 '신화구조 의미작용 모형'을 기반으로 도출한 '기호작용 분석 매트릭스'에 대입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한다. 사례분석 결과, 세 엠블럼 모두 그 시대를 구성하는 정치, 사회적 정서와 교회의 메시지를 시각적 기호로 응축하였다. 또한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국 천주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 문화 기호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 후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톨릭 신자 대상, 총 286부의 유효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SPSS 29.0 및 AMOS 29.0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가설 검증 결과, 신화적 의미작용 구조 안의 시각적 기호가 정서적 수용을 통하여 태도로 전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교회 내 역할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통해 종교적 상징의 수용이 신화적 측면보다 정서적 공명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시각적 기호 체계인 교황 방한 엠블럼을 신화적 의미작용 구조로서 해석하였다. 종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사례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해 수용도 경로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이 디자인 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목차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이론적 배경

- 2-1.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
- 2-2. 엠블럼의 정의와 기호작용
- 2-3. 기호작용의 구성요소와 적용사례
- 2-4. 감정 매개 이론과 수용도

### 3. 사례 연구

- 3-1.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공식 엠블럼
- 3-2.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 공식 엠블럼

- 3-3.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공식 엠블럼
- 3-4. 사례분석종합

### 4. 실증 연구

- 4-1. 연구모형 및 가설
- 4-2. 자료수집 및 표본
- 4-3. 측정도구
- 4-4.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 4-5. 주요변수 차이 검증
- 4-6. 연구가설 검증

### 5.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 가톨릭 교회사 안에서 자발적으로 창설된 교회라는 유일한 역사와 100년 넘게 이어 온 박해에도 신앙을 지켜낸 숭고의 역사를 지닌다.

20세기 후반, 세 차례 교황의 방한은 이러한 한국 천주교회의 정체성이 각 시대적 배경 및 상황과 어떠한 방식으로 맞물리며 재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다. 또한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 전달 기회를 마련하며, 당시 사회 정서와 갈등을 종교적 기호(記號) 안에 재배치 및 재생산하는 의미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27년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세계청년대회에 교황 레오 14세의 방한이 예정되어있다. 이번 방한은 교황의 네 번째 한국 방문이다. 1984년과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교황의 방한은 단순한 상징적 차원을 넘어 신앙인에게 감동과 신앙적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의미창출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제시한 의미작용(signification)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시각적 장치인 엠블럼을 통해 신화적 의미화를 생성하고 확장시키며 신앙 내러티브의

기호적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본 연구는 가톨릭 비주얼 아이덴티티(VI)의 요소인 엠블럼의 시각적 자극이 수용자의 정서적 평가(affective appraisal)를 통하여 태도(attitude) 및 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검증하고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기호작용의 시각적 구성요소 4항목(색채, 도상, 서체, 구성)을 바르트의 '신화구조 의미작용 모형'<sup>1)</sup>을 기반으로 한 '기호작용 분석 매트릭스'에 대입하여 분석한다. 이는 신화적 의미작용 분석을 통한 2차적 공시의미를 통하여 기표(記表)와 기의(記意)의 암시적이고 함축적인 의미 과정에 대한 해석을 밀도 있게 해줄 것이다. 각 엠블럼은 시대 상황, 사회적 현상, 교회사 안의 기의와,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내포된 의미를 담고 있다. 시각적 구성요소들은 기호작용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신화적 의미를 생성하고 신앙인에게 정서적 감동에 이어 신앙적·복음적 태도로 연결되는지 그 경로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가톨릭 엠블럼이 단순히 교회의 VI(visual identity)로서 기능함에 그치지 않고, 복음적 태도 전환에 자극을 주며,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 장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1) 롤랑 바르트, 정현 역, 『신화론』, 현대미술사, 1995, p.26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연구대상은 교황 방한 공식 엠블럼 3종(1984, 1989, 2014년)이며 각 시대의 사회·문화·종교적 맥락 속에서 기호작용의 구조와 신화적 의미화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수용도 경로 및 상관성을 검증한다. 둘째, 실증연구대상은 가톨릭 신자로서 평신도, 성직자, 수도자이다. 셋째, 연구내용은 엠블럼의 시각적 구성요소가 수용자의 정서적 평가와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국한한다. 넷째, 연구시기 범위는 2025년 11월의 실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서 동등한 조건(시점)이 아닌 2027년 세계청년대회 교황 방한 엠블럼(예정)을 사례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이론적 배경의 분석 매트릭스 적용에서 사례로 다룬다.

본 연구는 '서론 → 이론적 배경 → 사례 연구 → 실증 연구 → 결론'의 5단계로 진행된다.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의 기반 이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1984, 1989, 2014년 세 차례의 교황 방한을 역사적 근거로 하여 엠블럼 3종을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방한 예정인 2027년 엠블럼은 분석 매트릭스 적용 사례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후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 측정도구를 설계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작적 정의를 설정한다. 각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설문을 구성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하여 300명 설문조사 실시 후 총 286부의 유효 표본(불성실하거나 분석에 부적합한 응답 14부를 제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9.0 및 AMOS 29.0을 활용하였고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 )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한 타당도 검증,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한 경로검증을 실시한다.

또한 교회 내 역할(평신도, 성직자, 수도자)의 차이 검정을 통하여 암시적 의미와 기제 파악을 위해 다집단분석(Multi-group SEM)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이후 이론적 고찰과 사례 연구 결과 및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언어학을 뛰어넘는 문화기호학 논리와 구조화된 기호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화(神話, mythologies)'가 신화 이전에 존재하

는 기호학적 연쇄에서 출발해 성립된다는 점에서 특수한 체계이며, 이중적 연쇄에 의해 구성되는 '이차적인 기호학적 체계<sup>2)</sup>'라고 정의하였다.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기호학이 언어의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 1차 기호체계라고 하였고, 바르트는 1차 체계의 기호를 기표기능으로 보고 2차 기표와 기의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신화론'을 제시하였다. 소쉬르는 기호학적인 체계 중 인간 언어에 대해 연구했으며, 시니피에는 개념(concept)이며 시니피양은 심리적 질서에 속하는 청각적인 이미지라고 하였다. 이들의 개념과 이미지의 관계를 기호이며 구체적인 실체라고 했으며,<sup>3)</sup> 기호를 기표(signifiant)+기의(signifie)의 이원론적 실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소쉬르의 이원론적 사고는 바르트 신화론 의미작용의 기본 구조가 되었다. 바르트의 의미작용은 기호의 의미를 해석할 때 생성되고 의미를 재생산하는 작용이며 커뮤니케이션은 기표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의미작용은 수신자에게 기표이며 의미를 재생산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창출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신화는 바로 의미작용의 한 양식이고 하나의 형식이다. 그 형식 속에 사회를 재투여하며 신화학은 역사적 토대만을 가질수 있다. 신화는 바로 역사에 의해 선택된 파롤(parole)이며, 이 파롤은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여러 가지 표상들이 형성된다.<sup>4)</sup>

바르트는 모든 사회현상을 기호학의 대상으로 보았다. 신화구조 의미작용은 1단계 의미작용인 외시 의미(外示意味)와 2단계 의미작용인 공시 의미(公示意味)로 나눌 수 있다. 2단계 기호작용은 신화적이며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조형요소 및 표층 의미에 관한 분석에 논리적이다.<sup>5)</sup> 이러한 방법론적인 의미작용 연구는 디자인 분야에서 형태와 이미지 해석, 기제 파악에 상징적 독법으로 알려져있다.

김휘택(2022)은 바르트의 연구와 이론, 사고들이 소중한 것은, 당시만큼이나 지금에도 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그의 논의를 활용할 정도로 혁신적이고 현재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림 1]은 바르트가 제시한 신화적 의미작용 모형이다. 2단계 의미작용의 제2의 기의는 시대상황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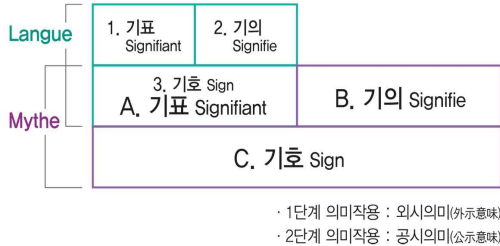
2) 롤랑 바르트,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역, 『현대의 신화』, 동문선, 2002, p.271

3) 롤랑 바르트, 정현 역, Op. cit. 1995, p.23

4) 롤랑 바르트,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역, Op. cit. 2002, pp.264-265

5) 강연실, '롤랑 바르트 의미작용을 통한 우리나라 신화 상징체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 09. Vol.20, No.12, p.86

회적 현상, 특정한 역사 안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닐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내포된 암시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바르트는 1단계 체계를 대상언어 활동(langage-object)라고 부르며, 2단계 체계의 언어를 메타 언어활동(meta-language)<sup>6)</sup>라고 칭하였다.



[그림 1] 신화적 의미작용 모형 7)

신화적 의미작용 모형의 첫번째 Langue항의 기표를 ‘의미(sens)’, Mythe항의 기표를 ‘형식(forme)’, Mythe항의 기의를 ‘개념(concept)’이라고 한다면 Mythe의 마지막 항이 바로 ‘의미작용(signification)’이 된다.

의미작용은 신화가 효과적으로 이중의 기능을 가지며 힘이 세지는 만큼 더욱더 정당화되고, 지칭하며 통고한다는 바르트의 논의에 깊게 동의한다. 더불어 그의 타고난 기호학적 감각과 현란한 문체로 이루어진 텍스트들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날에도 충분히 유효하다는 것을 밝힌다.

## 2-2. 엠블럼의 정의와 기호작용

### 2-2-1. 엠블럼의 정의

엠블럼(emblem)은 중세 유럽에서 왕족과 귀족의 가문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던 표지(標識)를 뜻하며 오늘 날에는 조직이나 단체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적인 표지로 이해할 수 있다.<sup>8)</sup>

Umberto Eco(1976)는 『기호학 이론』에서 ‘기호는 해석자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열린 체계’이며, ‘기표와 기의의 결합과정’이 의미작용의 체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엠블럼은 단순한 시각적 표지가 아니라 ‘신앙 내러티브의 기호적 매개체’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 교회의 엠블럼은 가톨릭 행사 또는 기

6) 롤랑 바르트,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역, Op. cit. 2002, pp.272-275

7) 롤랑 바르트, 정현 역, Op. cit. 1995, p.26

8) 김인국·김별, ‘지방자치단체의 비주얼 아이덴티티 유형과 명칭 표준화에 관한 연구 -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2022, Vol.71, p.80

념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신화적 의미와 복음적 메시지를 담아 수용자인 신앙인에게 가장 직관적인 방식의 교류이며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 2-2-2. 엠블럼의 기호작용

강혜진(2019)은 공공기관 심볼마크의 기호학적 의미 구조 연구에서 기호작용의 구성요소를 도상, 형태, 구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홍혜연·김주원(2014)은 도시 로고의 특성 및 효과 탐색 연구에서 컬러, 형태, 구성으로 요소를 분류하였다. 이원경·유보현(2013)은 구성요소를 컬러, 도상, 구성으로, 박일우(2011)은 시각정체성의 구성요소 연구에서 컬러, 서체, 형태로, 김성도(2004)는 기업로고의 구조와 의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구성 요소를 컬러, 도상, 구조로 정리하였다.

엠블럼의 기호작용의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엠블럼 기호작용의 시각적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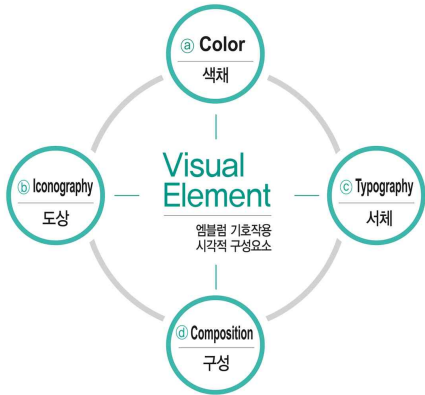
선행연구자	시각적 구성요소
강혜진(2019)	Iconography, Form, Composition
홍혜연·김주원(2014)	Color, Form, Composition
이원경·유보현(2013)	Color, Iconography, Composition
박일우(2011)	Color, Typography, Form
김성도(2004)	Color, Iconography, Structure

## 2-3. 기호작용의 구성요소와 적용사례

### 2-3-1. 기호작용의 구성요소

위의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기호작용의 시각적 구성요소를 본 연구에 맞게 색채, 도상, 서체, 구성(color, iconography, typography, composition)의 4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2]는 엠블럼 기호작용의 시각적 구성요소를 도식화한 모형이다.



[그림 2] 엠블럼 기호작용의 시각적 구성요소(연구자 작성)

### 2-3-2. 적용사례

엠블럼 기호작용의 시각적 구성요소 4항목과 바르트의 신화적 의미작용 모형을 적용한 분석 매트릭스를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교황 레오 14세 방한) 공식 엠블럼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엠블럼의 시각적 구성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2단계 공시미미로 확장되고 전회되는지 사례 적용예시를 통하여 규명하기 위함이다.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WYD)<sup>9)</sup>의 본대회는 8월 3~8일, 5박 6일 동안 열린다. 앞서 서울대교구를 제외한 15개 교구에서 열리는 교구대회는 7월 29일~8월 2일, 4박 5일 동안 진행되며 대회 기간 참가 인원은 한류 효과를 고려할 때, 해외 공식 참가자를 약 8-10만 명으로 추정<sup>10)</sup>한다. WYD 2027년 엠블럼은 조선 후기 겸재 정선(1676-1759)의 '인왕제색도'에서 영감을 받았다.<sup>11)</sup> 서울 인왕산의 유려한 능선을 담은 이 작품의 선에서 모티브를 얻어 붓 터치와 한국적인 조형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내어 한국천주교회의 정체성과 한국적 미감을 시각화하였다. 다음의 [표 2]는 2027년 교황 레오 14세 방한 공식 엠블럼의 기호작용 사례 적용예시 분석 매트릭스이다. 바르트가 주장하는 선택된 파롤(parole)이 어떠한 메시지와 표상으로 형성되는지,

9) 세계청년대회(WYD) : 'World Youth Day'의 약자. 국가, 인종, 언어, 종교의 경계를 넘어 가톨릭 교회가 주최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 1986년부터 교황이 선정한 도시에서 2-4년마다 개최되며 세계 젊은이들이 문화, 우정, 신앙을 교류하는 자리. 2027서울 WYD 공식홈페이지, (2026.01.05.).  
wydseoul.org/introduction/whatWyd

10) 천주교 광주대교구, '빛고을', 2025, 제2394호, p.5

11) WYD SEOUL 2027, BRAND IDENTITY GUIDELINES Vol.1, p.9

더불어 이중적 의미작용이 분화되어 재자연화되는 배경과 기제 의미를 분석한다.

[표 2] 기호작용 분석 매트릭스 사례 적용예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교황 레오 14세 방한 공식 엠블럼	
		1차 의미작용	2차 의미작용
		표현요소	표현내용(외시外示) 기의(공시公示)
Color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 3</li> <li>M93</li> <li>Y 76</li> <li>K 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극기 색상 조합</li> <li>한국적 색채</li> <li>빛의 색</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빨강 : 헌신과 열정</li> <li>파랑 : 청년의 희망</li> <li>블랙 : 깊은 믿음 시간</li> <li>노랑 :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상징</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 93</li> <li>M74</li> <li>Y 0</li> <li>K 0</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전통성</li> <li>젊음과 역동</li> <li>하느님의 빛</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젊음의 열정이 신앙의 빛으로 승화된다는 메시지 구축.</li> <li>청년의 에너지, 신앙의 본질</li> <li>교회의 보편성과 지역성의 조화를 자연화함.</li> <li>희망, 평화의 메시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 0</li> <li>M 0</li> <li>Y 0</li> <li>K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 8</li> <li>M12</li> <li>Y 84</li> <li>K 0</li> </ul>		
Iconography   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 획의 붓글씨 - 십자가 형태</li> <li>교차하는 인체형 도상 - 두팔을 들어올린 청년의 형상</li> <li>역동적인 청년의 모습</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전통서예기법 - 한국적 미감 표현</li> <li>한글과 영문 통합 - 동서양의 조화로운 일치 표현</li> <li>하느님께 향하는 존재의 상승, 청년들의 희망 담론의 시각적 표현</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ans-Serif typeface</li> <li>World Youth Day 개최도시, 연도표기</li> <li>기본서체 : Pretendard</li> <li>보조서체 : Noto Sa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이라는 장소성과 보편적 교회의 현재성</li> <li>합리적, 객관성</li> <li>타이포그래피적인 질서 추구</li> </ul>
Composition   구성	역동적 비대칭 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상이 왼쪽으로 흐르며 수직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강조</li> <li>각 stroke 의미 - 하나의 형태이름 - 모두가 함께하는 것에 의의를 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젊음과 열정의 세계 청년의 신앙여정 표현</li> <li>한국천주교회 신앙의 유산과 세계청년의 역동성,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사랑과 승리</li> <li>파스카의 승리, 희망과 용기를 시각적으로 구현</li> </ul>

### 2-4. 감정 매개 이론과 수용도

감정 매개 이론은 시각적 자극이 정서적·감정적 반

응을 유발하고, 감정이 태도와 행동의도 형성 과정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본다.<sup>12)</sup>

Holbrook과 Batra(1987)는 시각적·언어적 자극이 곧바로 태도 및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고 인지적 평가와 태도 형성, 나아가 행동의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자극체를 보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느끼게 되고', 그 느낀 바가 이후의 평가와 판단을 방향짓는 정서적 필터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Yaden, D. B. & Hyde, E.(2019)의 연구는 '경외(awe)'와 같이 초월적(self-transcendent)인 감정 경험이 개인의 세계관과 자기 이해, 그리고 종교적, 영적 태도 및 행동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시각적 자극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단순한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인지·태도·행동을 조직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본 연구의 시각적 자극을 통한 정서적 평가가 태도로 전화하는 의미작용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림 3] 수용도 분석 경로(연구자 작성)

위의 [그림 3]은 수용도 분석 경로 모형이다. 선행 연구자들의 이론을 참고하여 엠블럼의 시각적 자극이 정서적 평가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신앙적 태도가 형성되는 '시각적 자극 → 정서적 평가 → 태도'의 수용도 분석 경로를 설정하였다.

### 3. 사례 연구

1984, 1989, 2014년 세 차례의 교황 방한을 역사적 근거로 하여 엠블럼 3종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의 이론과 근거를 토대로 마련한 기호작용 분석 매트릭스에 적용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시각적 구성요소 4항목을 분류하여 엠블럼이 기호화되어 재생산하는 의미작용의 신화적인 조직(tissue)이 어떤 분절과 전이들로 만들어진 것인가를

12) Holbrook, M. B. & Batra, R., 'Assessing the Role of Emotions as Mediators of Consumer Responses to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87, Vol.14, No.3, pp.404-420

밝힌다. 기호화된 의미들이 맺는 관계들과 주체의 의미 작용 기제와 의미, 2차적 언어적 메시지로 분화하는 배경과 암시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3-1. 1984년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공식 엠블럼

1984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 성 요한 바오로 2세 (Karol Józef Wojtyła, 재임 : 1978-2005) 교황의 한국 방문이 있었다. 교황의 첫 방한이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대회 및 103위 성인 시성식 집전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게 있어서 '평화의 사도'인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은 무언의 압박이자 압력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황의 방한은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다. 정치적 압박과 사회적 억압이 만연한 현실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민주화를 지지하며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황은 시각적 기호체계의 색채와 도상 요소에 깊게 반영되었다.

455년 만에 이탈리아인 아닌 동구인으로서 교황직에 오른<sup>13)</sup> 슬라브계 첫 교황. 27년이라는 긴 여정의 가톨릭 수장이었던 카롤 보이티야.<sup>14)</sup>

가장 소외된 곳으로 안내해 주길 원했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맞이한 공식 엠블럼은 붉은 원 안의 십자가 형태이다. 마치 떠오르는 태양속 십자가처럼 보이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빛이 한국 땅을 비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공식 슬로건이 "이땅에 빛을!"(요한 8,12)이었다. 슬로건의 주제 성구를 모티브로 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의 전파를 시각화하였고, 군사정권의 어두운 시대를 드리운 빛의 상징으로 작동한다. 순교자의 땅,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한국 천주교회의 진리와 희생, 신앙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붉은 색채와, 그리스도를 통한 빛과 희망을 담아낸 십자가 도상, 그리고 원형의 빛은 태양과 성체로 해석된다.






당시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에서 분화된 희망과 구원에 대한 염원이 온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으로 기호의 재자연화를 생성하였으며, 2차적 의미작용이 구현된 시각적 기호체계라 할 수 있다.

13) 성염, '교황 요한바오로 2세와 가톨릭교회의 과거사 정리,' 神學研究, 2008, 제52집, p.161

14) 정창주, '성 요한 바오로 2세 안에서 악의 문제: -자비의 영성의 출발점-', 가톨릭사상, 2023, Vol.66, p.91

15) 천주교 전주교구, '숲정이', 1983, 제538호, p.3

[표 3] 1984년 엠블럼 - 기호작용의 시각적 구성요소 분석

1차 의미작용		2차 의미작용	
표현요소	표현내용(외시/外示)	기의(공시/公示)	
Color   색채		1. 붉은색 : 순교의 피, 박해와 순교 2. 청색 : 성모님 상징, 평화와 위로 그리스도의 심오한 진리 상징	• 붉은색은 신앙의 증거와 구원의 희생이라는 기의 수반 •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한국 천주교회의 열정과 희생을 상징. • 민족의 고난이 구원의 서사로 전화되어 신화적 기호로 탄생 • 단순한 피의 표상이 아니라 한국 천주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이라는 신화적 담론 형성
			
Iconography   도상	 	한국 땅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 1. 십자가 : 신앙 2. 원형 : 보편성	1. 십자가 : 그리스도 구원의 빛, 인류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 상징 - 신화적 구조 생성 2. 원형 : 큰 원은 그리스도의 빛, 이 땅에 복음이 전 파된다는 의미. 작은 원은 성체를 상징,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감을 나타냄. <sup>15)</sup> 3. 시대적 상황(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희망과 위로의 빛이 한국을 비추고 있다는 신화적 담론 구축
		행사 슬로건 - 주체 성구 (요한 8,12) Serif typeface : 전통적, 신리, 권위	• Serif typeface : 진중함과 역사성 강화 • 한국 천주교회의 200년 역사의 전통성과 정체성 표현 • 권위주의 시대성 반영, 사회적 정서와 결합하여 진리와 빛이라는 암시적 의미 내포 • '그리스도의 빛이 한국의 시대적 어둠을 밝힌다는 담론을 2차적 언어적 메시지로 분화
Composition   구성	원형 중심 구도	원형의 중심에 십자가 배치 - 안정적 - 집중적 레이아웃	• 한국 천주교회의 정체성 = 보편성 + 중심성을 강조하는 시각적 구조 형성 • 중심의 십자가 : 구원의 역사 내러티브 • 신군부의 정치적 압박 아래 시대적 어둠을 관통하여 빛을 드러낸다는 함축적 의미-시각적 완성 • 바르트가 제시한 '자연화된 신화'로서 구원을 감각적으로 재현

### 3-2. 1989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 기념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공식 엠블럼

1989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 44차 세계성체대회를 위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두 번째 방한이 이루어졌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형식적인 제도적 민주주의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과도기 속 변화의 열망, 평화와 일치에 대한 강한 갈망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 교세는 빠르게 성장하여 1980년대 후반 한국 천주교회는 성장기였고 천주교의 도덕적 리더십으로 사회적 신뢰도가 매우 높아져 있었다.

제44차 세계성체대회의 공식 주제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Christus Pax Nostra)로 선언되었다. 공식 엠블럼은 주제의 의미를 담아 ‘성체를 통해 세계에 퍼지는 빛으로 시각화되었다. ‘생명의 빵,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몸’의 의미를 내포한다. 원형의 성체를 가로지르는 붉은 십자가 형태의 구성이며 캘리그래피의 붓터치 질감으로 미학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주조색은 성체성사와 한국 순교자들의 순교정신을 떠올리게 하는 붉은 색이며,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함축하여 성체를 통해 세계에 퍼지는 빛을 시각화하였다. 타이포그래피의 부재는 단순한 생략이 아니라 말씀의 시각화를 의미하는 의도적 ‘침묵의 전략’이다. 형상 자체가 말씀이 된다는 상징적 의미이며, 바르트가 신화론에서 제시한 ‘기호의 재자연화<sup>16)</sup>’와 일치한다.

1989년 세계성체대회 엠블럼은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매체에 활용되었다. 1989년 10월 4일에 발행된 성체대회 기념 우표(명칭 : 세계를 밝히는 평화의 빛)와 공식 홍보 포스터, 배너, 대회 안내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기념 메달, 바티칸 시국이 발행한 기념 우표 등이 있다. 일관성 있는 아이덴티티로 대회의 정체성과 성체대회의 의미를 각인시키는 핵심적 역할로서 기능하였다.

인간 사이의 모든 소통행위는 의미작용의 전제를 그 필요조건으로한다.<sup>17)</sup>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은 추상적이지 않으며 평범한 모든 일상의 사고작용 자체를 의미작용으로 볼 수 있다.<sup>18)</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89년 엠블럼의 미디어 활용과 수용자의 정서적 반응 및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고 유의미하였다. 신화적

16) 롤랑 바르트, 정현 역, Op. cit. 1995, p.49




17) Umberto Eco,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18) 김휘택, '롤랑 바르트에게서 문화의 의미에 대한 고찰', 유럽사화문화, 2019, 제29호, p.87

담론을 암시하는 엠블럼의 시각적 요소가 효과적인 이중의 기능을 내재하며 더욱더 정당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엠블럼의 1차적 표현내용은 성체의 형태를 담고 있지만 2차적 공시미는 갈등의 시대를 관통하는 생명력과 열정, 그리고 희생의 상징으로 확장할 수 있다. 원의 형태는 교회의 보편성을, 십자가는 중심의 신앙을 나타내며 이 둘의 결합은 일치와 평화이다. 타이포그래피 부재와 강렬한 색채 결합의 결과는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기호체계로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989년 엠블럼은 단순한 대화의 기호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닌 민주화 이행기라는 시대의 긴장을 해석하고 이를 평화의 신화적 의미화로 전화한 상징적 장치였다.

[표 4] 1989년 엠블럼 - 기호작용의 시각적 구성요소 분석

		1989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공식 엠블럼	
		1차 의미작용	2차 의미작용
		표현요소	표현내용(외사外示) 기미(공시公示)
Color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붉은색 : 성체성혈과 사랑, 강한 에너지, 희생, 정열을 직접적으로 표현</li> <li>• 단색(1도) : 절제된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리스도의 희생</li> <li>• 민주화 과정의 뜨거운 열망을 동시에 상징</li> <li>• 종교와 사회적 의미를 기호로 통합하는 신화적 함의 형성</li> <li>• 단색 표현 : 다양성과 갈등을 '하나로 일치, 종교적 질서의 상징으로 작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과 수직, 수평 결합 형태</li> <li>• 캘리그래피: 한국적 붓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과 십자가의 결합 : 원은 보편성, 십자형태는 가톨릭의 연대성, 분열된 한국사회의 일치의 신화적 의미작용의 재자연화 생성.</li> <li>• 붓터치 표현 : 제도적 경직성이 아닌 행동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한국적 정체성의 공시미의 기호로서 작동</li> </ul>
Iconography 의상		해당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도적 부재 : 말쑥의 시각화, 상징적 '침묵의 전략'</li> <li>• 형상 자체가 말쑥이 된다는 의미 투영.</li> </ul>
Typography 서체		해당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도적 부재 : 말쑥의 시각화, 상징적 '침묵의 전략'</li> <li>• 형상 자체가 말쑥이 된다는 의미 투영.</li> </ul>

Composition 구조	원형중심의 단일 구도, 붉은 십자가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 안에 십자가 배치 의미 : 한국 사회의 혼란을 신앙의 중심구조로 수렴시키는 구조 제시, 신화적 일치와 화해를 시각적으로 구현.</li> <li>• 상징적 질서 구축의 의미</li> </ul>
	붓터치 표현의 원 위에 수직과 수평의 붓터치의 교차 구조	

### 3-3. 2014년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AYD), 한국 순교자 124위 시복식 기념 -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공식 엠블럼

2014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세 번째 교황 방한이 있었다. 바로 2024년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Jorge Mario Bergoglio, 재임 : 2013-2024)이다. 교황의 방한은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국가적 트라우마가 사회 전체에 깊게 자리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304명의 희생자와 미수습자, 구조 실패와 책임 논란은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 슬픔을 남겼고, 한국 사회는 치유와 기억, 연대에 대한 절대적 요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 속에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AYD)<sup>19)</sup>와 한국 순교자 124위 시복식<sup>20)</sup>을 위한 목적으로 교황 방한이 추진되었다. 교황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최초의 해외 사목방문<sup>21)</sup>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주제 성구는 '일어나 비추어라'(이사 60,1)이다. '파도처럼 일어나 불꽃처럼 세상을 비추라'는 뜻을 담고 있다.<sup>22)</sup>


공식 엠블럼은 성령의 불꽃과 물결이라는 단순한 도상을 넘어서, 세월호 참사 이후의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신화적 기호로 작동하였다. 붉은 불꽃은 청년의 열정, 희생과 연대의 정신을, 파란 물결은 하늘, 바다, 생

- 19) 아시아청년대회(AYD) : 'Asian Youth Conference'의 약자. 아시아 각국의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신앙을 나누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 6대주를 기준으로 각 대륙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축제. 나무위키, 아시아청년대회, (2026.01.05), [en.wikipedia.org/wiki/Asian\\_Youth\\_Day](http://en.wikipedia.org/wiki/Asian_Youth_Day)
- 20) 시복식(諡福式) : '시복'이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 성성(聖性)이나 순교로 인해 이름 높은 자에게 '복자(福者)라는 칭호를 주어 특정 교구, 지역, 국가, 혹은 수도단체 내에서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교황의 선언을 의미하며, '시복식'은 그 선포를 위한 공식 의식, 선포 미사 또는 전례(출처:가톨릭대사전).
- 21) 한홍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의 의미', 외교, 2014, 10, Vol.111, p.172
- 22) 유영훈,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의 의미와 해석', 한국사상과 문화, 2014, 11. Vol.75, p.549

명, 평화를 동시에 상징하며 상처받은 사회에 필요한 위로를 전달한다. 상승하는 형태의 구성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다는 한국 사회의 집단적 소망을 표현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난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메시지와도 긴밀하게 결합한다. 붉은색과 청색의 어우러지는 불꽃 형태는 분단국가인 남과 북의 평화와 일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2014년 엠블럼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국 사회의 시대적 아픔을 종교적 기호로 해석하고 기억, 연대, 치유의 신화를 구축한 시각적 상징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방문의 마지막 미사를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로 마무리했다. 방한 일정 동안 교황은 남한, 북한의 표현을 쓰지않고 줄곧 한국 또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

세월호 유가족을 가까이에서 위로하며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교황의 위로와 치유가 더 없는 의미작용(signification)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표 5] 2014년 엠블럼 - 기호작용의 시각적 구성요소 분석

 <p>2014년 제6회 AYD, 124위 시복식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공식 엠블럼</p>							
<table border="1"> <tr> <th colspan="2">1차 의미작용</th> <th>2차 의미작용</th> </tr> <tr> <th>표현요소</th> <th>표현내용(외시外示)</th> <th>기의(공시公示)</th> </tr> </table>		1차 의미작용		2차 의미작용	표현요소	표현내용(외시外示)	기의(공시公示)
1차 의미작용		2차 의미작용					
표현요소	표현내용(외시外示)	기의(공시公示)					
Color — 색채	<p>C0 M100 Y100 K20</p> <p>C100 M80 Y0 K0</p> <p>C70 M0 Y0 K0</p>	<p>1. 붉은색 : 성령의 불길, 젊음, 열정</p> <p>2. 청색 : 평화, 생명</p> <p>3. 하늘색 : 물결, 파도</p>	<p>• 붉은색과 청색의 대비</p> <p>1. 청년의 역동성과 성령</p> <p>2. (하느님의 위로)를 상징</p> <p>3. 어둠 속에서 일어나 세상을 밝히는 성령과 불꽃의 색채 적용</p> <p>4. 하늘색은 향하는 한국천주교회 상징</p>				
		<p>• 성령의 불꽃형태</p> <p>• 하늘색 물결</p> <p>• 상승형</p>	<p>• 교차하는 두 불꽃과 하단의 물결 : 한반도 상징,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염원을 신화적 의미로 시각화</p> <p>• 불꽃은 AYD의 정체성, 물결은 교회와 세월호를 은유함으로써 종교와 사회적 사건을 하나의 신화적 구조로 통합하여 시각적으로 가능함.</p>				
Iconography — 모양							

Typography — 서체	<p>일어나 비주이리</p>	<p>• 공식 주제 성구 '일어나비주어라 (이사 60,1)</p> <p>• 가톨릭서체 (서울대학교 공식 서체)</p>	<p>• 가톨릭서체 활용 : 한국천주교회의 아이덴티티의 일관성 유지, 가독성, 물입도 효과</p> <p>• Sans-serif Typeface의 간결함과 명료함. 단정함, 현대적, 기능적임.</p>
	<p>상승하는 불꽃 하단의 물결</p>	<p>• 상승하는 불꽃과 하단의 흐르는 물결의 결합</p> <p>• 서로 다른 불꽃(다른 색채)의 대칭 구도</p> <p>• 교차 구도</p> <p>• 곡선 중심의 유기적 조화</p>	<p>• 상승하는 불꽃과 하단의 흐르는 물결 의미 : 하늘(성령)과 땅(사회)을 연결하는 신화적 구조 구축, 세월호 참사 이후 치유, 회복, 연대의 상징 시각적 메타포로 작용함.</p> <p>•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한국 천주교회와 연대와 위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암시적으로 내포함.</p> <p>• 불꽃 교차의 의미 :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해의 일치를 위한 기원'이라는 신화적 의미작용의 재자연화 생성.</p>

### 3-4. 사례분석종합

1984년, 1989년, 그리고 2014년의 세 차례 교황 방한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당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집단 정서를 함축적으로 반영하는 사회 현상이다. 바르트가 제시한 기호학의 대상으로 2차 기호학적 체계이며 곧 신화이다. 각 연도별 엠블럼은 특정한 색채와 도상, 구성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기호를 취하였고, 이는 바르트가 말하는 1차적 외시외의미(外示意味)와 2차적 공시외의미(公示意味)가 결합된 문화적 산물로 기능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는 신군부 권위주의의 억압(1984), 민주화 이행기의 갈등과 열망(1989), 세월호 참사 이후의 슬픔과 위로, 치유(2014) 등 각기 다른 정황을 겪었고, 시대적 상황과 사회현상이 엠블럼의 기호체계 안에 상징적으로 구조화되었다.

첫 번째, 1984년 엠블럼은 붉은색과 십자가, 원형 중심 구성을 통해 '순교의 피'라는 직접적 의미를 색채로 표현하며 더 깊은 차원에서는 억압적 현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국 천주교회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구조화하였다.

두 번째, 1989년 엠블럼은 타이포그래피가 부재한 단순한 기호를 통해 민주화 이행기의 갈등을 일치와 평화라는 신화적 기호로 전환하였다.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화해와 통합의 욕구가 종교적 기호체계와 결합하며 상징적 의미를 확장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엠블럼은 성령의 불꽃과 물결을 조합한 동적 구성을 통해 청년과 생명,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해에 대한 메시지를 기호화하였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의 집단적 상처를 ‘기억·연대·치유’라는 신화적 구조로 재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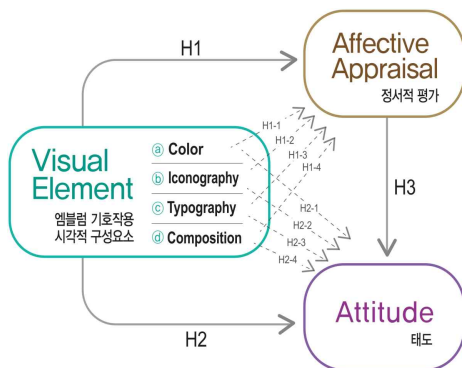
이처럼 세 엠블럼은 그 시대를 구성하는 정치·사회적 정서와 교회의 메시지를 시각적 기호로 응축하며, 단순한 상징이 아닌 한국 천주교회의 신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 기호로 작용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기호체계가 어떻게 시대적 정황을 반영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의미를 담아 신화적 담론을 형성했는지를 분석하였다. 2차적 언어적 메시지로 분화하는 배경과 암시적 의미에 대한 기제 파악은 가톨릭 상징과 상징체계를 확고하게 해 줄 것이다.

## 4. 실증 연구

### 4-1.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가톨릭 엠블럼의 시각적 자극이 수용자의 정서적 평가를 통하여 태도 및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와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바르트의 『신화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엠블럼 기호작용의 시각적 구성요소가 신화적 의미작용을 통해 정서적 평가와 태도에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 모형(연구자 작성)

위의 연구모형과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 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톨릭 엠블럼 기호작용의 시각적 구성요소 4항목은 통합적으로 시각적 자극체로 작용하여 정서적 평가과정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엠블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를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 H1. 가톨릭 엠블럼의 시각적 구성요소(color, iconography, typography, composition)는 수용자의 정서적 평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가톨릭 엠블럼의 시각적 구성요소(color, iconography, typography, composition)는 수용자의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수용자의 정서적 평가는 엠블럼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2. 자료수집 및 표본

분석에 활용할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가톨릭 신자 300명을 설문 대상으로 설정하여 2025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300부 중 무응답 및 불실한 응답 14부를 제외한 총 286부의 유효 표본을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설문의 목적과 항목, 자료 사용범위에 대한 설명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 4문항, 사례분석대상에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5 point likert scale). 시각적 자극에 관하여 각 요소별 3문항씩 12문항, 정서적 평가에 관한 3문항, 태도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본의 자세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여성이 162명(56.6%)으로 남성 124명(43.4%)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회 내 역할을 살펴보면, 평신도가 184명(64.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직자 52명(18.2%), 수도자 50명(17.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31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53명(18.5%), 20대 36명(12.6%), 30대 32명(11.2%), 60대 이상 34명(11.9%) 순이었다.

신앙생활 기간은 '21년 이상'이 169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10년' 47명(16.4%), '11-20년' 38명(13.3%), '5년 이하' 32명(1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N=286)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162	56.6
	남성	124	43.4
교회 내 역할	평신도	184	64.3
	수도자	50	17.5
	성직자	52	18.2
연령	20대	36	12.6
	30대	32	11.2
	40대	131	45.8
	50대	53	18.5
	60대 이상	34	11.9
신앙생활 기간	5년 이하	32	11.2
	6-10년	47	16.4
	11-20년	38	13.3
	21년 이상	169	59.1

### 4-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는 시각적 자극, 정서적 평가, 태도로 구성된다. 각 변수는 선행연구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시각적 자극(color, iconography, typography, composition)은 엠블럼의 시각적 요소로 시각언어적 특징이 수용자의 지각적 반응을 유발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olland Barthes(1957)와 Arnheim(1974)의 선행연구자 연구를 참고하였다. 정서적 평가(affective appraisal)는 시각적 자극이 유발하는 감정적·정신적 반응으로 성스러움·경외감·감동의 정서적 수용 정도를 평가한다. Holbrook & Batra(1987), Yaden et al.(2019)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조작적 정의를 구성하였다. 엠블럼에 대한 인식적·행동적 태도로 신앙적 호감·참여의도·긍정적 수용 의지를 포함하는 태도(attitude)에 관한 변수 측정은 Belk et al.(1989)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표 7] 설문문항의 조작적 정의 및 구성

변수	조작적 정의	문항수
색채	1. 색채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3문항
	2. 색채는 거룩함의 느낌을 강화시킨다.	
	3. 색채는 한국천주교회의 정체성(순교와 박해의 역사)과 어울린다.	
도상	1. 도상(상징)은 신학적 의미작용을 고려한 신학적 의미를 명확히 전달한다.	3문항

구성	2. 한국적, 가톨릭적, 시대적 맥락을 조화롭게 반영한다.	3문항
	3. 도상의 형태와 의미가 일관적이다.	
	1. 요소 배치가 균형과 안정감을 준다.	
서체	2. 전체적인 구성이 질서감과 조화감을 준다.	3문항
	3. 여백과 비례감이 적절하다.	
	1. 서체는 가독성을 높여준다.	
정서적 평가	2. 서체는 신학적 의미를 담은 디자인과 조화를 이룬다.	3문항
	3. 서체의 크기가 적절하다.	
	1. 엠블럼을 보면 거룩함이 느껴진다.	
태도	2. 평화롭고 경건한 정서가 생긴다.	3문항
	3. 경외감이나 영적 울림을 느낀다.	
	1. 엠블럼에 전반적으로 호감을 느낀다.	
태도	2. 디자인이 수용자의 의미창출과정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3문항
	3. 교회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사용된다면 지지하겠다.	

### 4-4.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 29.0과 AMOS 29.0를 활용하였다. 각 항목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판별타당성은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확인하였다.

측정항목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주성분분석을 통해 추출하였고, 직각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통해 정교화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적재치가 .5 미만으로 나타난 구성 2를 제거하고 진행하였다. KMO(kaiser-meyer-olkin)값은 .881로 .8 이상의 기준치를 충족하여 우수한 수준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chi^2=12969.193(df=136)$ ,  $p=.000$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모든 항목의 요인적재량이 .5 이상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Cronbach's  $\alpha$ 는 모두 .7 이상으로 측정항목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항목		표준화계수	CR	AVE	$\alpha$
시각적 자극	색채	색채1	.944	.850	.943
		색채2			
		0.975			
		0.900			

	색채3	0.889			
도상	도상1	0.616	.879	.714	.866
	도상2	0.922			
	도상3	0.956			
구성	구성1	0.813	.844	.731	.838
	구성3	0.895			
	서체1	0.904			
서체	서체2	0.887	.925	.803	.925
	서체3	0.898			
	정서적 평가1	0.902			
정서적 평가2	0.853				
정서적 평가3	0.892				
태도	태도1	0.914	.911	.773	.911
	태도2	0.871			
	태도3	0.851			

$\chi^2=754.805$ ,  $df=104$ ,  $p=.000$ ,  $AGF=.859$ ,  $GFI=.904$ ,  $TLI=.934$ ,  $NFI=.942$ ,  $CFI=.950$ ,  $IFI=.950$ ,  $RMSEA=.08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증분적 합지수가  $TLI=.934$ ,  $NFI=.942$ ,  $CFI=.950$ ,  $IFI=.950$ 로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절대적합지수는  $\chi^2=754.805$  ( $df=104$ ),  $AGF=.859$ ,  $GFI=.904$ ,  $RMSEA=.085$ 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집중타당성의 기준은 표준화경로계수, 개념 신뢰도(CR), Cronbach's  $\alpha$ 가 .7 이상, 평균분산추출(AVE)은 .5 이상이 요구된다. [표 8]와 같이 표준화 경로 계수가 .616부터 .975 사이, 개념신뢰도(CR)는 .844부터 .944 사이, Cronbach's  $\alpha$ 는 .838에서 .943 사이, 평균분산추출(AVE)은 .714에서 .850 사이로 모든 수치가 기준치를 상회하여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판별타당성 확보 확인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색채	.850					
도상	-.221 (.049)	.714				
구성	.497 (.247)	.294 (.086)	.731			
서체	.451 (.203)	.202 (.041)	.634 (.402)	.803		
정서적 평가	.467 (.218)	.240 (.058)	.545 (.297)	.573 (.328)	.750	
태도	.514 (.264)	.202 (.041)	.634 (.402)	.614 (.377)	.642 (.412)	.773

평균분산추출값인 대각선의 굵은 수치를 기준으로, 대각선 아래의 수치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계수를, 괄호 안의 수치는 상관관계계수의 제곱값을 나타낸다. 평균분산추출의 값이 상관관계계수의 제곱값보다 높을 경우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분석 결과, 상관관계계수의 제곱값이 .049부터 .412로 모든 평균분산추출 값이 상관관계계수의 제곱값보다 높게 나타나 구성개념 간 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

## 4-5. 주요변수 차이 검증

### 4-5-1. 엠블럼 연도별 주요변수 차이

엠블럼 연도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색채( $F=69.910$ ,  $p<.001$ ), 도상( $F=32.512$ ,  $p<.001$ ), 구성( $F=537.217$ ,  $p<.001$ ), 서체( $F=364.199$ ,  $p<.001$ ), 정서적 평가( $F=164.573$ ,  $p<.001$ ), 태도( $F=325.148$ ,  $p<.001$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Scheffé)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색채의 경우 2014년 엠블럼의 평균은 3.44로, 1984년( $M=4.12$ )과 1989년( $M=4.28$ )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도상 또한 2014년 엠블럼이  $M=3.02$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984년( $M=3.56$ )과 1989년( $M=3.55$ )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구성의 경우 2014년 엠블럼( $M=4.45$ )이 1984년( $M=4.80$ )과 1989년( $M=4.83$ )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반면 서체에서는 1984년 엠블럼( $M=3.60$ ), 2014년( $M=2.40$ )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평가에서는 2014년 엠블럼이  $M=2.67$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989년( $M=3.59$ ), 1984년( $M=3.40$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태도에서도 2014년 엠블럼이  $M=2.50$ 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989년( $M=3.67$ ), 1984년( $M=3.42$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 엠블럼 연도에 따른 변수 차이

변수	엠블럼 연도	평균	표준 편차	F(p) Scheffe
색채	1984년	4.12	.99	69.910 (.000) $c<a,b$
	1989년	4.28	1.01	
	2014년	3.44	.67	
도상	1984년	3.56	.97	32.512 (.000) $c<a,b$
	1989년	3.55	.99	
	2014년	3.02	.75	
구성	1984년	4.80	.34	537.217 (.000) $c<a,b$
	1989년	4.83	.30	
	2014년	4.45	.69	

서체	1984년	3.60	.59	364.199 (.000) c<b<a
	1989년	3.01	.43	
	2014년	2.40	.56	
정서적 평가	1984년	3.40	.73	164.573 (.000) c<b<a
	1989년	3.59	.51	
	2014년	2.67	.67	
태도	1984년	3.42	.58	325.148 (.000) c<b<a
	1989년	3.67	.43	
	2014년	2.50	.70	

#### 4-5-2. 교회 내 역할 별 주요변수 차이

교회 내 역할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 결과, 구성(F=4.411, p<.05)과 태도(F=4.469,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scheffé)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성의 경우 수도자 집단(M=4.94)이 성직자 집단(M=4.69)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태도의 경우에는 평신도 집단(M=3.48)이 성직자 집단(M=3.21)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11] 교회 내 역할에 따른 변수 차이

변수	교회 내 역할	평균	표준 편차	F(p) Scheffe
색채	평신도	4.18	1.05	1.628 (.198)
	수도자	4.12	.90	
	성직자	3.90	.86	
도상	평신도	3.51	1.00	.857 (.426)
	수도자	3.63	.93	
	성직자	3.69	.90	
구성	평신도	4.78	.38	4.411 (.013) c<b
	수도자	4.94	.22	
	성직자	4.69	.67	
서체	평신도	3.61	.67	2.580 (.078)
	수도자	3.71	.27	
	성직자	3.45	.49	
정서적 평가	평신도	3.38	.82	1.775 (.171)
	수도자	3.57	.42	
	성직자	3.31	.60	
태도	평신도	3.48	.61	4.469 (.012) c<a
	수도자	3.41	.49	
	성직자	3.21	.48	

#### 4-6.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SEM)의 분석을 통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chi^2=$

754.805(df=104, p<.001), AGFI=.859, GFI=.904, TLI=.934, NFI=.942, CFI=.950, IFI=.950, RMSEA=.08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H1은 시각적 자극이 정서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가설이다. 색채( $\beta=.337$ , CR=8.459, p<.001), 도상( $\beta=.206$ , CR=5.591, p<.001), 서체( $\beta=.297$ , CR=5.263, p<.001)는 모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반면, 구성( $\beta=.083$ , CR=1.333, p=.183)은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H2는 시각적 자극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가설이다. 그 결과, 색채( $\beta=.194$ , CR=5.107, p<.001), 구성( $\beta=.231$ , CR=4.053, p<.001), 서체( $\beta=.138$ , CR=2.646, p=.008)는 모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반면, 도상( $\beta=.058$ , CR=1.735, p=.083)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H3은 정서적 평가가 종속변수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가설로 분석 결과, 정서적 평가( $\beta=.333$ , CR=8.949, p<.001)가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H3은 채택되었다.

[표 12]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H	Path	$\beta$	S.E.	CR	p	Result
H1-1	색채 →	.337	.028	8.459	***	채택
H1-2	도상 →	.206	.044	5.591	***	채택
H1-3	구성 →	.083	.061	1.333	.183	기각
H1-4	서체 →	.297	.058	5.263	***	채택
H2-1	색채 →	.194	.028	5.107	***	채택
H2-2	도상 →	.058	.041	1.735	.083	기각
H2-3	구성 →	.231	.059	4.053	***	채택
H2-4	서체 →	.138	.057	2.646	.008	채택
H3	정서적 평가 →	.333	.039	8.949	***	채택

$\chi^2=754.805$ , df=104, p=.000, AGFI=.859, GFI=.904, TLI=.934, NFI=.942, CFI=.950, IFI=.950, RMSEA=.085

## 5. 결론

본 연구는 가톨릭 비주얼 아이덴티티(VI)의 핵심적 요소인 엠블럼의 기호작용과 수용도의 상관관계를 바르트의 신화론 관점에서 질적·양적연구로서 검증하였다. 또한 바르트의 신화적 의미작용 모형을 기반으로 도출한 분석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시각적 자극(color, iconography, typography, composition)의 정서적 반응과 수용, 태도 전화의 의미작용 경로를 실증하고 규명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각 연도별 엠블럼은 시각적 요소들 안에 시대와 교회를 대변하는 기호를 취하였고, 이는 바르트의 1차적 외시 의미(外示意味)와 2차적 공시 의미(公示意味)가 결합된 문화적 산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84년 한국 사회의 신군부 권위주의의 억압, 1989년 민주화 이행기의 갈등과 열망,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의 슬픔과 위로, 치유 등 각기 다른 정황을 겪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현상이 엠블럼의 기호체계 안에 상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세 엠블럼은 그 시대를 구성하는 정치·사회적 정서와 교회의 메시지를 시각적 기호로 응축하였다. 또한 단순한 상징이 아닌 한국 천주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기호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가설 검증 결과, 시각적 자극은 정서적 평가 과정을 통해 태도적 반응으로 전이되는 유의미한 흐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엠블럼의 시각적 요소인 색채, 도상, 구성, 타이포그래피(color, iconography, typography, composition)는 직접적으로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보다 정서적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시각적 기호가 신화적 의미작용의 구조 안에서 감정적 수용을 통하여 신앙적 태도의 형성으로 나아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때 정서적 평가는 상징적 이미지를 '경험된 신앙의 감정'으로 전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바르트의 신화적 의미화 과정에서 제시한 '자연화된 의미화(naturalized meaning)' 개념이다. 즉, 사회적·종교적 신념이 시각적 형태로 재현되어 감정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과정과 일치한다. 정서적 의미의 통로로 작동하게 되어 수용자는 시각적 상징을 통해 신앙의 감정적 실재를 경험할 수 있다. 나아가 신앙의 성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앙인의 행동과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본 연구는 가톨릭 엠블럼을 단순한 시각적 상징 체계

가 아닌 '감정적 신화(affective myth)'의 구조로 해석함으로써 종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신앙의 상징적 메시지가 감정과 시각적 언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복합적 의미화 과정임을 조명한다. 둘째, 실증분석을 통해 색채, 도상, 구성,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요소가 정서적 평가를 유발하고 태도 형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종교적 이미지가 신앙공동체 안에서 감정적 상호작용의 경로로서 기능함을 보여준다. 셋째, 교회 내 역할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평신도 집단이 시각적 상징을 보다 감성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크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종교적 상징의 수용이 신학적 지식보다 감정적 공명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가톨릭 시각커뮤니케이션의 의미작용을 해석하는 핵심 이론적 틀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미작용은 신화적 메시지가 효과적인 이중의 기능으로 그 힘이 강해질 때 더욱더 정당화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세 차례 교황 방한 기념 엠블럼(1984, 1989, 2014)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시각물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특정대상(가톨릭 신자)에 관한 연구라는 점이 연구 결과의 보편성에 한계가 있다. 타종교 신자와 비신자의 표본을 더하여 후속 연구의 스펙트럼을 넓혀 다양하고 심층적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심층 인터뷰, 시각적 연상기법활용 등)를 확장하여 엠블럼의 정서적 수용과 신앙적 경험 간의 서사적 구조를 폭넓고 정교하게 규명하기를 기대한다.

종교적 상징의 기호화된 의미작용 기제, 2차 언어적 메시지로 분화하는 배경과 암시적 의미, 더불어 신앙인의 신앙감과 복음적 태도로 전화하는 경로 흐름에 관한 분석은 매우 다각적이고 흥미로운 연구 과정이었음을 밝히며, 새로운 학문적 영감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1. 롤랑 바르트,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역, 『현대의 신화』, 동문선, 2002

2. 롤랑 바르트, 정현 역, 『신화론』, 현대미학사, 1995
3. 강연심, '롤랑 바르트 의미작용을 통한 우리나라 신화 상징체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
4. 강혜진, '공공기관 심볼마크의 기호학적 의미 구조 연구', 시각디자인학연구, 2019
5. 김성도, '바르트와 이미지: 시각 기호학을 넘어', 불어불문학연구, 2016
6. 김성도, '시각적 정체성의 기호학적 연구 - 기업 로고의 구조와 의미작용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2004
7. 김인국 · 김별, '지방자치단체의 비주얼 아이덴티티 유형과 명칭 표준화에 관한 연구 -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2022
8. 김휘택, '롤랑 바르트의 수사학에 관한 연구', 기호학 연구, 2022
9. 김휘택, '롤랑 바르트에게서 '문화'의 의미에 대한 고찰', 유럽사회문화, 2019
10. 김휘택, '롤랑 바르트 저술에 나타난 '감정'에 대한 고찰', 프랑스문화연구, 2022
11. 박일우, '시각정체성(VI)의 구성 요소 연구 - 기업 및 대학 사례 중심', 디자인학연구, 2011
12. 성염, '교황 요한바오로 2세와 가톨릭교회의 과거사 정리', 神學研究, 2008
13. 유영훈,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의 의미와 해석', 한국사상과 문화, 2014
14. 이원경 · 유보현, '지역축제 엠블럼 디자인의 상징 표현이 축제의 인지도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13
15. 정창주, '성 요한 바오로 2세 안에서 악의 문제: -자비의 영성의 출발점-', 가톨릭사상, 2023
16. 한홍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의 의의', 외교, 2014
17. 홍혜현 · 김주원, '우리나라 도시 로고의 특성 및 효과 탐색 연구', 지방행정연구, 2014
18. Holbrook, M. B. & Batra, R., 'Assessing the Role of Emotions as Mediators of Consumer Responses to Adverti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87
19. Yaden, D. B., Kaufman, S. B., Hyde, E., Chirico, A., Gaggioli, A., Zhang, J. W., & Keltner, D., 'The development of the Awe Experience Scale (AWE-S): A multifactorial measure for a complex emo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019
20. [www.namu.wiki](http://www.namu.wiki)
21. [www.wydseoul.org](http://www.wydseoul.org)